

## 중국 산둥성의 FTA 활용현황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조흥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An Empirical Study on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FTA Utilization in Shandong Province, China

Xing-Wen Zhao<sup>a</sup>, Tae-In Kim<sup>b</sup>

<sup>a</su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9 August 2022, Revised 23 September 2022, Accepted 28 September 2022*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effect of FTA environmental factors (company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corporat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FTA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Shandong companies in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test the hypothesis, SPSS 24.0 statistical packages were us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indings** -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ternational marketing orientati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awareness of FTA) of companies had a positive(+) effect on FTA utilization. Seco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mpanies' FTA utilization. Non-tariff barriers will have a negative (-) effect on companies' use of FTA. Third, A company's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TA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f Shandong companies wa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s, they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marketing,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on competitors and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e export activities to the global market. 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FTA among enterprises in Shandong Province,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elevant education of enterprises about FTA.

**Keywords:** China's Shandong Province, FTA Awareness, FTA Utilization, FTA Performance

**JEL Classifications:** F10, F14

## I. 서론

오늘날 지역경제통합화는 세계 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는 WTO 체제의 다자간 협정에서 국가 간의 양자간 협정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FTA(Free Trade Agreements)가 빠르게 확산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FTA 체결에

\* 이 논문은 조흥문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 및 수정한 것임.

<sup>a</sup> First Author, E-mail: heungmun0516@naver.com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tikim@kangwon.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적극 참여해 왔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중국, 아세안, 일본이 체계적인 FTA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중국정부는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中国共产党十七届人民代表大会)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지대 전략 실시 및 양자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2013년 11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3중전회(中国共产党第十八届三中全会)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대외경제무역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넘어서 중국의 국가 전략이 되었다.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36개국 및 해당 지역과 FTA를 구축하는 단계별 자유무역지역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산둥성은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양국은 오랜 교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산둥성 진출 한국 기업이 첫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산둥성에 대한 투자와 무역은 크게 증가했으며, 2005년 한국은 산둥성의 최대 수입국이면서 4위 수출국이 되었다. 2010년 한국과 산둥성의 교역액은 281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것은 산둥성 전체 대외무역의 14.8%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둥성의 대외무역은 같은 연안에 위치한 장쑤성(江苏省), 절강성(浙江省) 등과 비교해서 수출입금액과 무역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둥성의 주요 무역 상품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멘트, 화학/화장품,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문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FTA 활용률 제고와 FTA의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 중에서 중국 산둥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산둥성의 경쟁우위 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둥성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요인과 FTA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산둥성 기업들 대상으로 FTA 환경요인(기업 내부환경요인, 기업 외부환경요인)이 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활용요인과 활용도,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FTA 선순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둥성의 산업별 FTA 활용전략 및 FTA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발효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산둥성 기업의 FTA 환경요인(기업의 내부 환경요인, 기업의 외부 환경요인)이 중국 산둥성의 FTA 활용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한 후 이를 통해 중국 산둥성의 FTA 활용의 선순환 효과를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병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성과

1990년 이전까지 체결된 FTA는 27건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49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272건으로 나타났다(KOFOTI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 2020). 지난 50년간 세계 경제가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큰 변화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경제의 성공적인 융합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을 시작했다. 2001년 WTO 가입한 후 중국은 아세안 및 주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무역 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able 1.** 발효 중인 중국의 FTA 현황 (2022년 현재, 16건)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홍콩 및 마카오CEPA	2003	2003. 6(홍콩) 2003.10(마카오)	2004. 1. 1	중국 최초의 무역 협정
파키스탄	2003. 1	2006. 11	2007. 7. 1	중국은 파키스탄의 제4위 교역대상국
뉴질랜드	2004. 11	2008. 4	2008.10. 1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칠레	2004. 11	2005. 11	2006.10. 1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체결한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호주	2005. 04	2015. 6	2015. 12.20	선진국 경제권과 최초의 FTA
싱가포르	2006. 09	2008. 10	2009. 1. 1	중국은 싱가포르의 제2위 교역대상국
아이슬란드	2006. 12	2013. 4	2014. 7. 1	유럽과 최초의 FTA, 완전경제통합
페루	2007. 9	2009. 4	2010. 3. 1	라틴 아메리카시장에서 7번째 교역대상국
코스타리카	2008. 11	2010. 4	2011. 8. 1	중국은 코스타리카 제2의 교역대상국
대만 ECFA	2009. 12	2010. 6	2010. 9. 12	양안(중국대륙과 대만) 경제일체진의 촉진
ASEAN(10개국) <sup>9)</sup>	2001. 11	2002. 11	2004. 1. 1	세계 제3위 자유무역협정
한국	2012. 5	2015. 6	2015. 12.20	동북아시아지역국가와 첫 번째 체결한 FTA
스위스	2009. 4	2013. 7	2014. 7. 1	유럽 선진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캄보디아	2020. 1	2020. 10.12	협상중	중국과 최빈국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몰디브	2015. 12	2017. 12	협상중	몰디브가 서명한 최초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RCEP <sup>10)</sup>	2012. 11	2020.11.15	2022. 1. 1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무역 협정

## 2. 중국 산동성의 FTA 추진 현황 및 성과

개혁개방 40년 동안 산동성의 대외무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칭다오(青島) 세관과 지난(濟南) 세관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산동성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백만 달러에서 2,630억6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증가 속도는 연평균 35.7%로 중국 전체의 같은 기간보다 22.2%가 높고, 중국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01%에서 6.4%로 높아졌다. 대외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여 초창기 100여 개에서 현재 4.2만 개로 증가하였다. 90년대 초기 산동성의 교역상대국 및 지역은 50여개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226개 국가로 대폭 증가하였다. 1992년~2010년간 산동(山東)성의 대한민국(對韓) 교역 규모는

9) ASEAN: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10) RCEP: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총 15개국

7억2천만 달러에서 280억8천만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중 FTA가 체결됨에 따라 산동성은 한국에 대한 지리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대한국 무역액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한국은 산동성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산동(山東)성은 현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Table 2.** 산동성의 2016-2020년 무역 통계

(단위: 억 달러)

년도	무역총액(산동성)	무역총액(중국)	비중(%)
2016	2,342.10	36,849.25	6.3
2017	2,630.57	41,044.70	6.4
2018	2,923.91	46,230.40	6.3
2019	2,962.99	45,753.00	6.4
2020	3,184.47	46,462.60	6.8

〈Table 2〉를 보면 산동(山東)성의 무역 규모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산동성의 수출입 총액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3,184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의 6.8퍼센트를 차지했다.

2019년 8월 26일, 중국(산동)자유무역 시험구(FTZ)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역 산업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육성, 해양특화산업 가속화, 한중일 3국 지방경제협력 모색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2년 동안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과 발전을 통해, 산동성의 2019-2021년 수출입 무역총액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2021년 1~9월 산동(山東)성 수출입 총액은 2조1천2백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6.8%, 2019년 동기대비 41.9% 증가를 나타냈다. 수출은 1조2천3백억 위안으로 39.3%가 늘어 2019년 동기대비 52.0% 증가했고 수입은 8천854억6천만 위안으로 33.4% 증가해 2019년 동기대비 29.8% 증가했다. 산동성의 수출입총액, 수출과 수입 증가 속도는 각각 중국 전체 평균을 웃돌며 증가 속도는 상위 6대 주요 지방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3. 이론적 배경

FTA 활용률 제고 요인을 도출한 논문과 FTA 활용도 및 수출성파에 대한 논문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첫째, FTA 활용률 제고 요인을 도출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용태(2014)는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 연구를 통하여 독립변수(기업 외부요인, 기업 내부요인)중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내부환경요인 중 FTA 정보획득역량은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FTA 활용 비용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기업 외부환경요인 중 FTA 원산지규정은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혜관세수준, 정부의 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는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윤호 외(2016)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관련 중소기업의 내부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이 FTA 이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내부환경인 FTA 교육 참여와 FTA 원산지 활용의지가 FTA 활용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외부 환경적 요인인 내수시장 경쟁의 강도와 FTA 활용도 역시 FTA 이용 의향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건(2013)의 한국 강원도 경쟁력우위 산업의 FTA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기업특성(글로벌지향성, 기업의 경쟁력, 규모)과 FTA 인지도, FTA 활용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지향성과 기업의 경쟁력, FTA 인지도가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손인범(2015)은 대전·충남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FTA 활용이 수출성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외적요인 중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기업 내적요인 중에서는 원산지관리역량이 수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2008)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FTA 활용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업의 약30%는 여전히 FTA 관련 정보 부족해서 FTA 특혜 관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호·나도성(2014)은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수출성과 확대를 위해 FTA 체결지역에 대해 시장점유를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결과, FTA 활용역량(수출물입, 마케팅역량)이 수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즈평·김태인(2016)은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국제마케팅 지향성, 기업의 FTA에 대한 인지도, 비관세장벽에 대한 완화조치 부족이 FTA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국제마케팅 지향성과 FTA 인지도는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부족은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무한(2010)은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 연구에서 기업들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FTA 활용도가 낮으며, 따라서 FTA 체결정보와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인정(2019)은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의 외적요인(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 결정기준, FTA 특혜관세수준, FTA 검증 방식, 정부의 FTA 활용지원)과 기업 내적요인(원산지관리 역량, 경영층의 FTA에 대한 관심도, 정보획득 역량, FTA 활용 비용)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들이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조미진·안경애(2011)는 한국 FTA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 국내기업의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활용정도와 인지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산지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원산지 정보 관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완수(2015)는 원산지검증의 인적역량과 원산지검증의 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원산지검증요인과 FTA 활용도에 대한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간 파트너십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내·외부적 요인들이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과 성공적인 FTA의 수행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岳文晙문(2020)은 중국 기업들의 FTA 활용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연구에서 2017년 중-아세안 FTA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프로비트 모델을 활용하여 실증을 하였다. 그 결과, FTA 정보 획득의 어려움, 원산지 증명서 신청의 어려움, FTA 활용 비용 등이 FTA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태인·이준건(2014)은 수입기업의 경우에는 HS 품목분류와 협정세율, FTA 인지도가 FTA 활용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서는 글로벌지향성과 기업경쟁력이 FTA 활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선즈평(2017)은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도 및 발효성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중소기업의 내부 환경요인(국제마케팅지향성, 인지도)과 외부 환경요인(비관세장벽 완화)이 한-중 FTA에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FTA의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avusgil, S. T., Zou, S.(1994)는 마케팅전략-성과관계:수출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실증 관련 연구에서 수출 성과를 수출 활동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기업의 목표 달성 예상 결과로 정의하였다.

S Zou, S Stan(1998)은 기업의 성과는 대체적으로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및 복합 성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영진의 태도, 경영진의 물입 지식, 기업 정보 및 수출 경험이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J. ZHANG(2019)은 중-한 FTA는 중국과 한국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에도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 중 식물성 기름과 설탕이 가장 많고, 기타 곡물, 밀 및 기타 곡물, 야채 및 과일의 순서로 증가를 예상하였다.

김용태(2014)는 FTA 활용도와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즈평(2016, 2017)은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인지도 상승 - 활용도 상승 - FTA 성과”의 한-중 FTA에 특화된 선순환 효과를 제시하였다.

김재우(2014)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기대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내부요인 중 FTA 이해도와 내부 어려움, 그리고 외부요인 중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는 FTA 활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FTA 활용의도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측면 모두에 기업의 FTA 기대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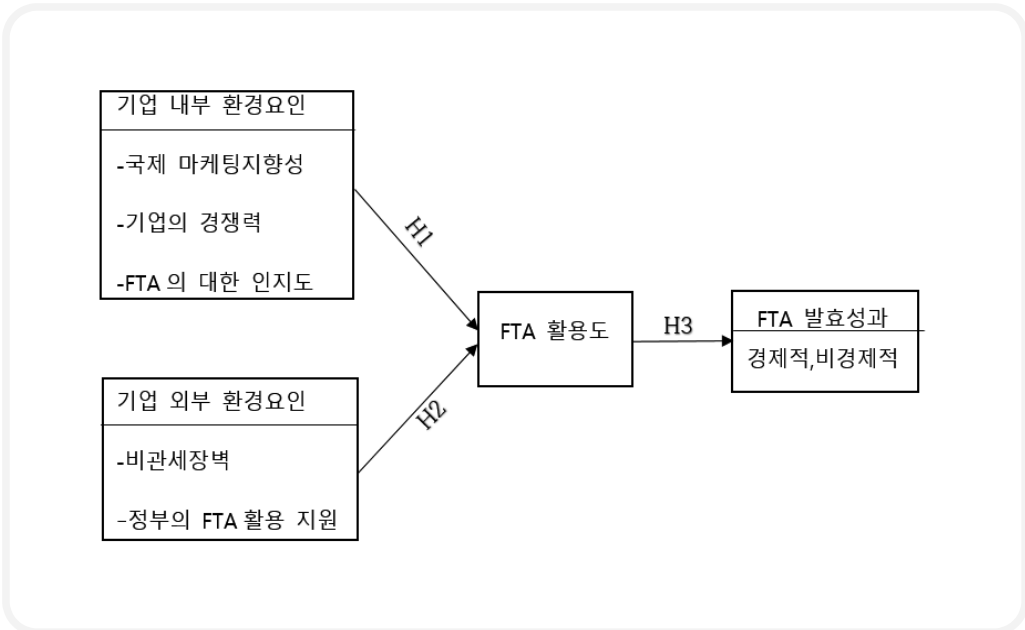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2장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요인을 내부환경 요인(국제마케팅지향성, 기업 경쟁력, 기업의 FTA에 대한 인지도)과 외부 환경요인(정부의 FTA 활용지원, 비관세장벽 완화)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 산동성 기업들의 FTA 활용도와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 환경요인에 대하여는 이준건(2013), 김태인·이준건(2014), 김재우(2014), 김용태(2014), 손인범(2015), 선즈평·김태인(2016), 선즈평(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중국 산동성 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설정

송희영·이영주(2008)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향성과 관련하여 시장에 대한 거래 경험과 기업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심재권(2013)은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 내부자원요인 중 해외 마케팅역량 요인이 한-아세안 FTA 활용도와 수출성파에 각각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선즈핑·김태인(2016)은 화장품 수출기업의 내부요인 중 국제마케팅 지향성이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중국 산동성 기업의 국제 마케팅지향성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1: 국제 마케팅 지향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Takahashi and Urata(2008)는 일본-싱가포르 FTA, 일본-멕시코 FTA, 일본-말레이시아 FTA에 대해 469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FTA 활용률은 기업의 규모 및 기업의 경쟁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수출량이 많을수록 FTA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 J PENG(2018)은 기업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수출기간이 길고 수출 규모가 큰 경쟁력 있는 기업은 무역 정책에 더 민감하고 FTA를 더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김태인·이준건(2014)은 기업 내부적 특성 중 기업의 경쟁력이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기업의 경쟁력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2: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이준건(2013)은 FTA 인지도에 대한 설문항목 중 수출 HS번호 및 C/O 발급절차 인지도, FTA 협정세율 인지도 등 8개 항목이 FTA 수출 활용도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 HS번호 및 C/O 발급절차 인지도와 FTA 협정세율 인지도가 높으면 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즈핑·김태인(2016)은 FTA에 대한 인지도가 FTA 활용도 및 FTA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박철구·최장우(2013)는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 요인(FTA의 인지도, 원산지절차의 인지도, 원산지증명의 필요성의 인지도)이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FTA에 대한 인지도가 기업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3: FTA의 대한 인지도는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정환우(2013)는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협상 시사점 연구에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 양허·철폐 논의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의 목표 중 하나는 중국 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절차와 법규가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즈핑·김태인(2016)은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부족은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Y. Y XU(2020)는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 한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과 무역을 하게 되었고, 양국 간 농산물 무역 교류가 더욱 편리해짐과 동시에 중국 농산물의 품질검사 기준은 더 높아졌으며, 수출제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하였다. 한국도 한국의 중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시키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술무역장벽을 통해 중국의 농산물의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은 기업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1: 비관세장벽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김용태(2014)는 기업 외부환경요인 중 특혜관세수준, 정부의 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가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선즈핑(2017)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FTA에 대한 홍보지원이나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FTA 활용지원이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정부의 FTA 활용 지원이 기업의 FTA 활용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2: 정부의 FTA활용 지원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정인교(2010)는 기업의 FTA 활용이 한-미 FTA 체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하였다. 선즈핑(2016, 2017)은 화장품산업과 한-중 FTA 비교연구를 통해 FTA 인지도가 FTA활용도 및 FTA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김용태(2014)는 기업의 FTA 활용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재우(2014)는 기업의 FTA 활용의도가 재무적 및 비재무적 측면에서 기업의 FTA 기대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제시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FTA 활용도가 기업의 FTA 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3. 변수측정 및 조작적 정의**

연구모형 및 가설은 크게 기업의 내.외부 환경요인과 FTA 활용도 사이의 관계분석, FTA 활용도와 FTA 발효성과 사이의 관계분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해 기업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였고, 각 독립변수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관계분석 및 가설검정을 위해 FTA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FTA 발효성과를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 변수에 대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Table 3>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Table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측정항목	선행연구
국제마케팅지향성	경쟁업체 대비 제품정보, 제품 현지적응능력, 제품가격 경쟁력, 마케팅활동 추구 정도	1. 황경연(2010) 2. 김재우(2014) 3. 송희영(2008) 4. 선즈핑 김태인(2016)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3년 간 매출액	1. 이준건(2014) 2. L. J PENG(2018)
FTA 인지도	수출품목 HS 코드, 수출상대국 수입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1. 이준건(2013) 2. 김재우(2014) 3. 김용태(2014) 4. 선즈핑,김태인(2016) 5. 선즈핑(2017)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적용	1. 정환우(2013) 2. 박준현,윤병섭(2019) 3. Y.Y XU(2020)



정부의 FTA활용지원	관세청, 중소기업청 컨설팅 지방자치단체, 진흥공단, 무역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서비스	1. 김용태(2014) 2. 김재우(2014) 3. 손인범(2015) 4. 선즈평(2017)
FTA 활용도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1. 이준건(2013) 2. 김용태(2014) 3. 김재우(2014) 4. 선즈평,김태인(2016)
FTA 경제적 성과	최근 5년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증가, 비관세조치(위생검역 등) 완화에 따른 수출증가 정도	1. 이준건(2013) 2. 김재우(2014) 3. 손인범(2015) 4. 선즈평,김태인(2016)
FTA 비경제적성과	FTA 발효 후 제품 인지도 향상, 상대국 시장에 대한 이해 증가, 산업 협력 기회 등 성과의 종합적 평가	1. 이준건(2013) 2. 김재우(2014) 3. 손인범(2015)

자료: 선행연구의 설문지 내용 저자 재구성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FTA 활용 경험이 있는 중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국 인터넷 설문사이트 问卷星(<https://www.wenjuanxing.cn>)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90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09부를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통계분석 하였다. 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 신뢰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실증분석

##### 1. 기업의 일반적 특성

중국 산동성 수출입 기업의 업종과 5년 연매출액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Table 4.** 산동성 설문조사 기업의 업종

업종	빈도	퍼센트(%)
농업·축산물·수산물·식품	42	13.5
시멘트	40	12.9
화학/화장품	37	11.9
플라스틱/고무	29	9.3
섬유/의류	23	7.4
문구	23	7.4
강철, 금속	20	6.4
자동차 및 액세서리	19	6.1
스포츠용품	17	5.5
의료기기	14	4.5
기계/전기 및 전자	13	4.2
광석	10	3.2
기타	22	7.1

설문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농업·축산물·수산물·식품 업종이 13.5%로 가장 많았고, 시멘트 업종이 12.9%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의류, 문구, 자동차 및 액세서리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및 시멘트 산업에서 원재료의 개별원산지기준(PSR)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플라스틱, 고무, 섬유, 의류, 문구, 자동차 산업에서 완제품의 개별원산지기준(PSR)은 세변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산동성의 해당 산업별로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전략을 다르게 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의 개별원산지기준(PSR)을 살펴보다라도 식품은 CC와 RVC(45), CTH가 혼용되어 있고, 시멘트 완제품은 CTH, 전기기기는 CTH 또는 RVC(40), 기계류 및 부분품은 CTH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Table 5. 산동성 설문조사 기업의 5년의 연매출액**

연 매출액	빈도	퍼센트(%)
10만 달러 이하	72	23.3
10만~100만 달러	99	32
100만~1천만 달러	72	23.3
1천만~5천만 달러	45	14.5
5천만 달러 이상	21	6.8

(Table 5)에서 최근 5년 연매출액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10만~100만 달러 기업이 32%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10만 달러 이하 및 100만~1천만 달러의 기업이 23%로 2위를 차지하여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 2.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환경요인과 외부환경요인, FTA 활용도, FTA 성과에 대한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분석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SPSS 24.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 6)에서 기업 내부 환경요인의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0.721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역시 1126.917 (df=36, p=0.000)로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요인추출 모형으로는 주성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요인 회전방식으로는 Varimax 법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650 이상으로 기준치를 넘는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기업 내부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총 설명력은 71.236%로 추출된 요소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 기업 내부 환경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구성요인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량	공통성
국제 마케팅지향성	A1	.790	2.748	30.538	.629
	A2	.874			.766
	A3	.894			.799
	A4	.679			.482
기업의경쟁력	B	.992	2.653	29.474	.984
FTA의 대한 인지도	C1	.814	1.007	11.187	.666
	C2	.854			.731
	C3	.859			.739
	C4	.781			.611

KMO(Kaiser-Meyer-Olkin)=.721, Bartlett's 구형성 검출 Chi-Square=1126.917 df=36, p=.000, 총분산=71.236%

(Table 7)에서 기업 외부 환경요인의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0.743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역시 1142.021 (df=21, p=0.000)로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나타났다. 역시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법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760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기업 외부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총 설명력은 75.419%로 추출된 요소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7. 기업 외부 환경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구성요인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분산량(%)	공통성
비관세장벽	D1	.845	2.893	41.322	.714
	D2	.885			.782
	D3	.887			.791
	D4	.779			.609
정부의 FTA활용 지원	E1	.890	2.387	34.097	.793
	E2	.913			.833
	E3	.870			.751

KMO(Kaiser-Meyer-Olkin)=.743, Bartlett's 구형성 검증 Chi-Square=1142.021 df=21, p=.000, 총분산=75.419%

(Table 8)에서 FTA 활용도의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0.808로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역시 1077.058 (df=15, p=0.000)로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나타났다. 역시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법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700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FTA 활용도의 구성 요인들이 가지는 설명력을 의미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3.419%로 추출된 요인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8. FTA 활용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구성요인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량(%)	공통성
FTA활용도	F1	.722	3.805	63.419	.521
	F2	.826			.681
	F3	.855			.731
	F4	.810			.656
	F5	.799			.635
	F6	.760			.577

KMO(Kaiser-Meyer-Olkin)=.808, Bartlett's 구형성 검증 Chi-Square=1077.058 df=15, p=.000, 총분산=63.419%

(Table 9)에서 FTA 발효성과의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는 0.905로 요인분석으로 나타난 변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역시 1485.226 (df=21, p=0.000)로 유의수준 0.001 이내로 나타났다. 역시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법을 이용하여,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0.700 이상으로 기준치보다 크게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FTA 성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총 설명력은 77.540%로 추출된 요소들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9.** FTA 발효성과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구성요인	요인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량(%)	공통성
FTA 발효성과	G1	.842	4.784	68.348	.708
	G2	.838			.702
	G3	.864			.747
	G4	.783			.613
	G5	.876			.767
	G6	.835			.697
	G7	.741			.549

KMO(Kaiser-Meyer-Olkin)=.905, Bartlett's 구형성 검증 Chi-Square=1480.219 df=21, p=.000, 총분산=77.540%

### 3.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항목에 대한 구성개념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인 Cronbach's  $\alpha$  신뢰 계수를 이용하여  $\alpha$ 값이 0.700 이상이면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충기, 2017).

Cronbach's  $\alpha$  신뢰 계수 값은 기업 내부 환경요인인 국제 마케팅 지향성은 0.825, 기업의 경쟁력은 0.854, FTA에 대한 인지도는 0.847로 나타났고, 기업 외부 환경요인인 비관세장벽은 0.871, 정부의 FTA 활용지원은 0.870로 나타났다. 구성개념 모두 일반적인 신뢰성 기준 값인 0.700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TA 활용도와 FTA 활용도의 구성 요인의 Cronbach's  $\alpha$  신뢰계수 값 역시 0.884과 0.922로 각각 나타나 내적 일관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0.** 신뢰성 분석

구성개념	문항 수	Cronbach's $\alpha$
기업내부 환경요인	국제 마케팅지향성	.825
	기업의 경쟁력	.854
	FTA의 대한 인지도	.847
기업외부 환경요인	비관세장벽	.871
	정부의 FTA활용 지원	.870
FTA 활용도	6	.884
FTA 발효성과	7	.922

### 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전에 측정요인 간 상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1> 과 같이 국제마케팅지향성, 기업의 경쟁력, FTA인지도, 정부의 FTA활용지원은 FTA 활용도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비관세장벽은 FTA활용도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연구가설에서 설정된 변수 간에 대체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향성도 대체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A	B	C	D	E	F	G
A	1						
B	0.011**	1					
C	0.037**	0.010**	1				
D	0.059**	0.018**	0.055**	1			
E	0.045**	0.031**	0.144**	0.019**	1		
F	0.157**	0.190**	0.272**	-0.129**	0.373**	1	
G	0.003**	0.042**	0.061**	0.024**	0.103**	0.170**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주: A는 국제마케팅지향성, B는 기업의경쟁력 C는 FTA인지도, D는 비관세장벽, E는 정부의 FTA활용지원, F는 FTA활용도, G는 FTA 성과

### 5. 연구가설의 검증

기업 내부 환경요인인 국제 마케팅 지향성, 기업 경쟁력, FTA 인지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FTA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2)의 결과를 보면, R2값은 0.110, F값은 15.141(유의확률p=.000)로 나타나 설명력과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제 마케팅 지향성은 t=2.710, p= .007로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경쟁력은 t= 3.471, p= .001로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는 FTA에 대한 인지도는 t= 4.943, p= .001로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12.** 기업 내부 환경요인과 FTA 활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21	.392		6.428	.000	
A	.145	.054	.145	2.710	.007	1.001
B	.139	.040	.185	3.471	.001	1.000
C	.253	.051	.264	4.943	.000	1.001

R=.360, R2=.130, 수정된 R<sup>2</sup>=.110, F=15.141, p=.000  
 \* P < 0.05, \*\*P < 0.01, \*\*\*P < 0.001

기업 외부 환경요인인 비관세장벽, FTA 활용 지원을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FTA 활용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3)의 결과를 보면, R<sup>2</sup>값은 0.149, F값은 27.883(유의확률p=.000)로 나타나 설명력과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t=-2,313, p= .021로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TA 활용 지원은 t= 7.056, p= .000으로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13.** 기업 외부 환경요인과 FTA 활용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084	.301		6.428	.000	
D	-.104	.045	-.122	-2.313	.021	1.000
E	.276	.039	.371	7.056	.001	1.001
R=.360, R2=.130, 수정된 R2=.110, F=15.141, p=.000						
* P < 0.05, **P < 0.01, ***P < 0.001						

FTA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FTA 발효성과는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4〉의 결과를 보면, R<sup>2</sup>값은 0.029, F값은 9.126(유의확률p=.000)로 나타나 설명력과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TA 활용도는 t= 3.021, p= .003으로 FTA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14.** FTA 활용도가 FTA 발효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116	.301		13.669	.000	
F	.179	.059	.170	3.021	.003	1.000
R=.360, R2=.130, 수정된 R2=.110, F=15.141, p=.000						
* P < 0.05, **P < 0.01, ***P < 0.001						

가설검증 결과에 따라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여부를 정리해보면 〈Table 4-14〉와 같다.

**Table 15.** 가설의 검증결과

가설	가설내용	분석결과
가설 1-1	국제 마케팅지향성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1-2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1-3	FTA의 대한 인지도는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1	비관세장벽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2	정부의 FTA활용 지원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3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 V.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부환경요인과 외부 환경요인이 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업 내부환경요인(국제 마케팅지향성, 기업 경쟁력, FTA 인지도) 및 외부환경요인(정부의 FTA활용지원, 비관세장벽 완화)을 도출하고 FTA 활용도 및 성과변수들을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국제 마케팅지향성과 기업 경쟁력, FTA 인지도는 각각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FTA 활용지원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국 산동성 기업은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FTA 활용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그리고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는 국제마케팅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FTA 실무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비관세장벽을 완화시키고 또한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FTA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산동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도 상승 - 활용도 상승 - FTA 성과”의 선순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 기업의 내부환경요인(국제 마케팅지향성, 기업 경쟁력, FTA 인지도)과 외부환경요인(정부의 FTA 활용지원, 비관세장벽 완화)이 FTA에 활용도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FTA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 산동성 기업들이 FTA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면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등 국제마케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중국 산동성 기업들의 FTA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제품의 HS번호와 상대국의 FTA 협정세율,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C/O발급 방법, FTA 활용 모델에 대한 정부 주도의 FTA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김태인·이준건, 2014). 그리고, FTA 활용도를 높이기 HS 품목분류 확인과 원산지결정기준 관정을 위한 BOM(원재료명세서) 작성 및 C/O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특혜관세율 적용신청,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보급 등을 통해 FTA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선즈평·김태인, 2015).

가공식품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및 상대국 관세율 인하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일본, 스위스 등 FTA 상대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에 맞게 제조 및 가공을 한 후, 수출하여 상대국 관세를 인하 수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일본, 아세안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가공식품, 화장품, 섬유 등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인하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된다. RCEP의 경우, 가공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이므로, 아세안 시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개별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 후 한국과 일본, 호주 등 RCEP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도 향후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산동성의 시멘트 및 광석 산업은 RCEP 체결로 인하여 수입국의 양허 관세 혜택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시사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조사를 표본 수가 309부이므로 데이터에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설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방식의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측정항목이 적어서 측정 효과에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측정변수를 발굴 및 채택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중국 방역 정책이 산동성 기업들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해제되면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중국 산동성으로 연구 대상과 지역이 한정됨에 따라 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이 있다. 향후 중국 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확대하고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2022년부터 RCEP이 발효되었다. 산동성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향후 중-한 FTA협정과 RCEP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김용태 (2014),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 정재완 (2013),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4(2), pp.45-64.
- 김재우 (2014), "중소기업의 FTA 활용의도 및 기대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인 (2014). "FTA Business Models for Competitive Industries in Gangwon Province, Korea", *무역연구*, 10(6), pp.139-163.
- 김태인 선즈평 (2016), "강원도 경쟁우위산업의 FTA 활용률 제고방안 연구", *무역연구*, 12(3), pp.519-538.
- 김태인 이준건 (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16(3), pp.225-251.
- 정인교 (2010), "FTA 활용활성화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pp.36-45
- 이효연 (2013), "한·중 FTA와 산업별 비교우위 분석 연구",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홍유수 이준호 (2008), "거대경제권 FTA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정운호 장지원등(2016), "FTA 관련 기업의 내부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이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Vol.2016 No.4 pp.323-339.
- 손인범 (2015),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연구: 대전·충남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호 나도성 (2013),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8(2), pp.295-319.
- 김무한 (2010),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진 안경애(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6권 제3호, pp.83-105.
- 박완수 (2015), "원산지검증을 위한 기업의 내·외부적 역량이 FTA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즈평 김태인 (2015), "중국 산동성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실증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6(1), pp.59-82.
- 선즈평 김태인 (2016),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7(4), pp.147-171.
- 황경연 (2010), "중소수출기업의 조직특성, 정보기술역량 및 수출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1), pp.177-199.
- 송희영 이영주 (2008), "한 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관세학회지*, 9(2), pp.1-23.
- 심재권 (2013),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과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우 (2013),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협상시사점: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28(단일호), pp.89-115.
- PENG L.J. (2018),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Firms' Use of FTA - Based on the Analysis of FTA Survey Data for China Eastern Alliance," Graduate School of Nanjing University. Master's Degree Paper.
- Yue W. and J. Han (2020),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a Company's FTA Export," *Journal of the Beijing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Vol.35 No.2. pp 34-44.
- Chen X.J. (2014),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TA on China's Agricultural Trade",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China, Phd's Degree Paper.
- Xu Y.Y. (2020), "A Study on the Export Trade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Set in the Korea-China FTA," Gileem University, Master's Degree Paper.
- You X. (2015), "The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Zone on Trade between Shandong Province and Korea," Sandong University of Finance. Master's Degree thesis.
- Cavusgil, S. T. and S. Zou (1994), "empirical link in export market ventures", *Journal of Marketing*, 58, pp.1-21.



- Cavusgil, S. T. and S. Zou (1994), "Marketing strategy-performance relationship: an investigation of the empirical link in export market ventures", *The Journal of Marketing*, pp.1-21.
- Zou, S. and S. Stan (1998), "The determinants of export performanc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between 1987 and 1997",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15(5), pp.333-356.